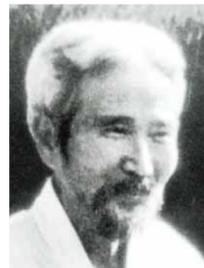




인물이 뜨니 지역이 떴다



남도 '인물 브랜드' 서둘러야



21세기는 사람이 지역의 브랜드이자 문화자산인 시대다. 남도는 예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했지만 인물 브랜드 전략은 타지역에 비해 뒤쳐진 편이다. 지역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인물 브랜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가들.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광주일보 DB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28·完〉 인물 브랜드의 결산과 방향

모든 것이 품요로운 시대다.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에는 많은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해도 구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제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제품의 품질, 서비스, 가격 등과 같은 일차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요인이 있다. 그것은 브랜드와 인지도로 대변되는 제품의 이미지다.

21세기에는 이 브랜드가 유형의 사물이나 상품을 넘어 사람으로까지 확대된다. 사람은 브랜드이자 자산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그것은 문화의 자장이 작품, 건축물, 그림, 음악 등 유형의 장르를 넘어 특정 인물에게까지 연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광주일보는 지난해부터 매일 격주로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시리즈를 연재해왔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삶을 토대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짚어냈다. 인물 브랜드는 지역을 알리고 세일즈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영향력 있는 방안이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인물의 삶은 스토리텔링, 캐릭터, 영화, 연극, 출판, 테마파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원소스가 되기 때문이다.

하동 박경리·용인 백남준·제주 이종섭 등

지역 대표 유명인 '문화자산' 영향력 확인

명창 임방울·가수 김정호 등 배출한 남도

추억할 공간·기념관 없이 과거에 머물러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된 문화예술인 = 시리즈에서 조명된 인물은 모두 27명이었다. 화가 박수근(양구), 가수 김광석(대구),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용인), 소설가 박경리(하동), 화가 이응노(대전), 시인 윤동주(서울), 학자 류성룡(안동), 작가 최명희(전주), 음악가 윤이상(통영), 건축가 김중업(안양), 조각가 문신(왕원), 시인 정지용(옥천), 화가 나혜석(수원), 화가 김기창(청주), 건축가 김수근(서울), 작가 채만식(군산), 화가 이종섭(제주), 가수 김정호(광주·담양), 화가 허백련(광주), 국창 임방울(광주), 가수 이만영(목포), 시인 김현승(광주), 화가 오지호(광주·화순), 음악가 정용성(광주·화순), 작곡가 안성현(나주), 시인 박기동(보성), 조각가 김영중(장성)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문화예술인이다.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꼽히는 박수근은 강원도 양구의 브랜드가 된 예술가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예술가로 살다 사후에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기억되었다. 그의 작품과 삶, 지향했던 가치가 시대를 초월해 한국인의 고유 감성과 맞닿아 있다는 방증이다.

양구군은 지난 2002년 생가가 있던 자리에 미술관을 건립해 지역 관광과 연계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미술관을 관람한 뒤, 지역 특산물인 시래기와 사과를 구입한다. 가까운 곳에는 분단의 상징인 '제4땅굴', '편지봉'이 있어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양구군은 전쟁의 상흔이 자리한 고장이라는 수사를 넘

어, 예술의 고향이라는 모토를 살뜰히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서른 즈음에'는 서정적인 가사와 한국적인 울림이 깃든 노래다. 요절한 가수 김광석의 고향은 대구다. 대구시는 2011년 세계 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를 추켜들었다. 방천시장 인근에서 태어난 김광석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벽화 그리기의 작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김광석 길은 하루 평균 5000명이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 거장 반열에 오른 작가'라는 수사가 따른다. 경기도 용인에는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리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다. 비디오 예술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그의 고향은 서울이다. 그의 이름을 딴 아트센터가 용인에 자리잡게 된 것은 지자체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물론 작가가 첨단과 자연을 아우르는 용인에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원했던 이유도 있다. 비디오 설치작품 등 248점을 비롯 아카이브 자료 2285점을 소장한 아트센터는 백남준이라는 명품 브랜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냈고 있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고향은 통영이다. 하동은 소설의 무대가 된 곳으로, 이곳에는 작품의 배경인 '최참판댁'과 문학적 가치가 응결된 '평사리문학관'이 있다. 하동과 통영, 원주는 지역을 알리기 위해 박경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통영에서 태어나 원주에서 거주하며 하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집필한 작가 박경리의 브랜드 파워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동을 찾는 이들은 토지마을을 빼놓지 않고 방문할 만큼 이곳은 명소가 되었다. 관성적 사고를 뛰어넘는 행정기관의 직관력, 앞을 내다보는 비전, 주민들의 의지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

그림 '군상'의 화가 이응노는 대전이 자랑하는 예술가다. 일평 휘자로 그려낸 '군상'은 이응노의 미적 세계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응노 미술관은 문화전당, 시립미술관 등 대전 예술의 심장부가 자리한 곳에 위치한다. 인근에 대덕연구단지, KAIST 등 정보산업 클러스터도 있어 향후 예술과 접목이 기대된다. 흥성 출신이지만 이응노는 대전이 배출한

예술가로 인식될 만큼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이밖에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 발행과 영화 '동주'로 새롭게 다가온 시인 윤동주(서울), 한국음악과 유럽음악을 독특하게 결합한 음악가로 평가받는 윤이상(통영),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듯' 소설을 썼던 '혼불'의 작가(전주) 최명희 등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손색이 없는 예술가들이다.

◇남도의 인물 브랜드화 방안 시급 = 광주와 남도는 예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했지만 인물 브랜드 전략은 타지역에 비해 뒤쳐진 편이다. 제품이 우수해도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저명한 예술가와 연관된 공간이나 기념관이 없다면(있어도 제대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물을 매개로 한 문화자산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로 평가받는 가수 김정호는 광주가 고향이지만 이렇다 할 기념관이 없다. 외가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 노래비가 있을 뿐이다. 고독의 시인 김현승의 문학이 꽃을 피운 광주에는 그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고택이나 문학관이 없다. 영국의 엘리엇에 버금가는 지적 감수성을 지닌 시인이지만 그의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공간 또한 전무하다시피 하다.

광주 광산이 배출한 국창 임방울은 어떤가. '숙대머리', '호남가'를 불렀던 당대 최고 명창의 흔적은 송정 지하철역 한켠에 유적처럼 박제돼 있을 뿐이다. 동요 '엄마야 누나야'의 작곡가 안성현과 그의 친구이자 '부용산'을 썼던 시인 박기동도 마찬가지다. 나주 지역강에 노래비와 보성 벌교에 시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이처럼 광주와 남도의 인물 브랜드화는 저조한 실정이다. 문화자산은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 요소다. 그 중심에 인물 브랜드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인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차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